



농촌공 동진지사, 농업용수 통수 시작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오는 29일 백파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를 시작하며 관내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파제는 매년 낙양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 지역 일대 3만 3177ha의 농지에 용수를 공합하는 행사로 1927년부터 동진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해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수식이다.

올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식적인 백파제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동진지사는 이번 통수를 앞두고 섬진강댐과 연계된 주요 수로(김제간선, 정읍간선, 동진강도수로) 및 양수장 점검을 철저히 마쳤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농가들이 물 걱정 없이 제때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진지사는 스마트 제어시스템 도입과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 양병대 기자

ybd3465@daum.net

(8.7*17.7)cm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업용수 통수 시작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오는 29일 백파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를 시작하며 관내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파제는 동진지사에서 시행하는 매년 낙양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 지역 일대 33,177ha의 농지에 용수를 공합하는 행사로 1927년부터 동진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해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수식이다.

김제=임재영기자

(11.2*5.8)cm

동진 농어촌공, 김제간선

통한 영농급수 본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오는 29일, 백파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를 시작하며 관내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진지사는 이번 통수를 앞두고 섬진강댐과 연계된 주요 수로(김제간선, 정읍간선, 동진강도수로) 및 양수장 점검을 철저히 마쳤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농가들이 물 걱정 없이 제때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진지사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도입과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영농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4.7*14.9)cm

농어촌공 동진, 풍년농사 첫단추

29일부터 농업용수 통수 시작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오는 29일 백파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를 시작하며 관내 영농활동 지원에 나선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첫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파제는 동진지사에서 시행하는 매년 낙양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 지역 일대 3만3,177ha의 농지에 용수를 공할하는 행사로 1927년부터 동진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해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수식이다.

동진지사는 이번 통수를 앞두고 섬진강댐과 연계된 주요 수로(김제간선, 정읍간선, 동진강도수로) 및 양수장 점검을 철저히 마쳤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농가들이 물 걱정 없이 제때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진지사는 스마트 제어시스템 도입과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규 기자

(5.5*17.6)cm

내일부터 농업용수 공급 시작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지역내 영농활동 지원 본격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오는 29일 백파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를 시작해 지역내 영농활동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해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파제는 동진지사에서 시행하며, 매년 낙양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 지역 일대 3만 3,177ha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행사다. 1927년부터 동진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해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통수식이다.

동진지사는 이번 통수를 앞두고 섬진강댐과 연계된 주요 수로(김제간선, 정읍간선, 동진강도수로) 및 양수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농가들이 물 걱정 없이 제때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펼친다.

한편, 동진지사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도입과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 활동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한유승 기자

(11.4*11.8)cm

奎北日報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업용수 통수 시작

윤강현규 | ① 입력 2025-04-26 15:45 | ② 수정 2025-04-26 15:45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내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 백파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파제는 동진지사에서 시행하는 매년 낙양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 지역 일대 3만3177ha의 농지에 용수를 공합하는 행사로 1927년부터 동진지역의 광활한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해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수식이다.

동진지사는 이번 통수를 앞두고 섬진강댐과 연계된 주요 수로(김제간선, 정읍간선, 동진강도수로) 및 양수장 점검을 철저히 마쳤으며,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농가들이 물 걱정 없이 제때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강현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29일 백파제 기점으로 본격 통수 시작

✎ 정승운 기자 | ㉠ 승인 2025.04.25 13:09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29일부터 관내 농지에 본격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올해 통수는 김제, 정읍, 부안 지역의 33177헥타르 농지에 이뤄지며, 동진지사는 이를 위해 섬진강댐과 연결된 주요 수로 및 양수장 점검을 완료했다.

백파제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번 용수 공급은 1927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최장수 통수 행사로, 올해는 공식 행사는 생략된다.

동진지사는 스마트 제어시스템 운영과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통수를 통해 인근 농가들은 적기에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인호 동진지사장은 "시설 점검과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농가에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진지사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기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승운 기자 suloveej@hanmail.net